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시간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며, 동시에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되지 않고, 회복과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비밀이 기도에 있습니다. 도움과 희망이 가장 멀어진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 응답과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그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어떤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고백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자신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누구나 ‘내가 왜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대답이 고난을 지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내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쉬운 말로,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도가 시작되고, 회개가 시작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회복

본문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가 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다시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과 회복하는 것의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어 가면 예배를 피하게 되고, 교회를 피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피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피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얼굴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의 회복

9절에 보면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이야기 한 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한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기도 가운데 고백 되었습니다.

한 주간 감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감사가 내 마음과 입술에서 사라진 것은 정말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기도에서 감사가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67)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0/2(월)	10/3(화)	10/4(수)	10/5(목)	10/6(금)	10/7(토)	10/8(주일)
암7-9, 옴1	온1-4, 미1-2	미3-7	나1-3, 합1-2	합3, 슥1-3	학1-2, 슥1	속2-8

QT

이번 주 QT 말씀

10/2(월)	10/3(화)	10/4(수)	10/5(목)	10/6(금)	10/7(토)	10/8(주일)
잠1:20-33	잠2:1-22	잠3:1-10	잠3:11-26	잠3:27-35	잠4:1-9	잠4:10-2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지금 내 삶(고난과 문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3.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4. 나의 기도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세요.